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복음으로 여는 오바다-

오바다 1:3-4, 요한복음 13:35

정윤돈 목사님

*** 요1:3-4**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비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요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 안에 있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호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오순을 한 나그레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작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들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레미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고 도전하다가 성취하여, 그 성취된 말씀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참된 성령충만과 전도캠프의 삶

오늘은 오바다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자 마침 성령강림주일이다. 성경 사도행전 2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과거에는 성령충만을 받는 증거가 방언이나 예언,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충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증인, 즉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응답하며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되신 그리스도를 살 속에서 널리 증거하는 용담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충만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원수나 이웃 나라를 대할 때 나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비판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전도캠프’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요즘 휴식과 여가를 위해 캠핑이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음에도 굳이 산이나 강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새로운 자연환경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캠핑과 차박이 즐거워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 인생 역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캠프인생이다.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모두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나그네캠프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캠프’의 인생을 살아가길 축원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캠프가 기록되어 있다.

- 제1캠프(사도행전 13장) : 다섯 제자가 모인 ‘만남의 캠프’이다. 인생캠프에서 누구를 만나 동역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도, 결혼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 캠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신앙의 팀을 이루는 것이다.
- 제2캠프(사도행전 16장) : 무속, 점술, 우상과 같은 흑암의 문화, 네비티의 문화를 박살내는 캠프이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악령과 세상 문화에 끌려 다니는 영적 흐름을 뒤집고, 진리와 복음의 강대로서 무장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영적 전신갑주(엡6:10-17)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 제3캠프(사도행전 19장) : 두란노사원에서처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자를 양육하여,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지역과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이다.

이러한 캠프인생 속에서 참된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첫째,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인생의 일부뿐만 말고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업, 남편, 근심과 걱정 등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상태가 성령충만의 출발점이다. 둘째, 끊임없이 질문하며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선한 목적, 즉 세계복음화와 교회 부흥, 그리고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머리에 피가 안도록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매우 많은데, 스스로를 완전히 우울증 환자로 만드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평불만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받은 것만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 결국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지게 되므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로 그러한 생각들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 마음과 같은 생각은 단호히 버려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 이어가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한 나쁜 생각은 끊어버려야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세밀하게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흥해가 갈라질 때까지, "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 해외캠프를 준비할 때의 일이다. 현지에서 K-pop 댄스와 워십 버스킹을 기획을 생각하며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구했다. 이런데 중 원폭 평화의 광장 근처에서 이미 버스킹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부행사에 엄격한 일본에서 안전하게 버스킹 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끝까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990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없어서 일본에 300군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했었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기도하며 팀을 형성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그분들을 만나 선교현금도 드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얼마에 현금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 선교현금을 전달하려고 하니 시간이 되시는지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부탁했다. 이미 현지 사역자들과 매일 아침예배를 드려오던 선교사님과 정확히 연결되는 세밀한 인도를 경험했다. 이처럼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고 생각하며 결정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다시금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밀한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홍콩캠프에 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식당을 하나 찾을 때도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구했다.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옆에서 캠퍼들이 바로바로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받았는지 모른다. 이처럼 엘리에게 임한 작은 구름처럼 아주 미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늘 민감해야 한다. 내 기분, 내 경험, 내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지나가듯 하는 이야기라도 가볍게 듣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 준비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며, 설령 기분 나쁜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을 놓고 계속 세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으로 성령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성령충만하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불가능하다. 오늘 오바다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과 잘못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교만이고 반대로 너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없는 상태이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사랑은 잘한다. 가족을 향한 ‘스토르케’, 친구를 향한 ‘필레오’, 이성 간의 ‘에로스’같은 사랑에는 목숨을 걸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이다.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고 하신 것은 진한 사랑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 에돔 족속은 교만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선고하셨다.

서론 : 교만과 남 탓의 영적 문제를 넘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에돔 족속은 천혜의 높은 요새 속에 살고 있었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다서는 총 21절로 이루어진 구약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다. 성경은 길든 짧은 전체적인 주제가 동일하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축복을 받는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원죄의 문제이자 뿌리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의 본질이다. 가장 큰 교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선생님, 영적 지도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단메시지들을 들 때 하나님께서 정윤돈 목사를 통해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찾게 될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응답을 받으면 절대 고난해질 수가 없다. 반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자 무엇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문제가 크고 많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3장 타락사건 이후, 창세기 4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형제 살인이다. 우리가 교만했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부인 탓, 남편 탓, 환경 탓, 부모 탓,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된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것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탄은 남을 탓하게 만들고, 서로를 분열시키며 불평과 교만으로 이끈다. 과거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표어를 쓴 적이 있는데, 무척 공감이 간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려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셨다. 우리 역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남 탓을 멈추어야 한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야 한다. 사단이 가뭇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듯, 우리의 생각도 늘 경계해야 한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귀한 훈련을 받은 자리에서 계속 필기를 하며 사신을 찍어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어야 할 시간에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헛생각과 편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령충만 속에서 성령인도 받길 원한다. 마음과 같은 형제 사랑의 문에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같음이 아니라 친척 이후 지속되어 온 영적인 문제이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서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하다. 심방을 가서 한 권사님에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점수가 몇 점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70점이 라고 대답하셨는데, 사실 이는 굉장히 높은 점수이다. 과거 대학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영적 성장을 체크하게 해보면 대부분 30~40점, 즉 낙제점을 적어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낙제점을 받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70점을 말씀하신 권사님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셨기에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고난이 터진 후에야 주님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평상시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미리 훈련받고 실천해야 한다. 그저 학교에 출석만 하듯 억지로 끌려 다니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영적 서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 무능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도를 보내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고 하셨는데, 이는 절대불가능한 우리를 성령충만을 통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는 말씀처럼, 불가능을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때 복음 가진 소수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오바다서의 기록목적은 에돔 족속의 잘못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교만한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은 "멸절되리라(욥1:10)"고 선포하셨다. 과거 그토록 강성했던 에돔의 도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판지로 변해버렸다. 인물 역사에서 참사람을 저버리고 교만했던 제국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결국 무너졌다. 그러나 언약 백성인 참복음의 사람들은 끝내 축복을 받는다. 오바다서 1장 21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리가 여호와의 속하리라"고 약속한다. 여기서 "구원 받은 자들"은 참복음의 사람들이고 "예서의 산"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이고 "나리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다.

1. 에돔 족속의 잘못과 징계

1) 에돔 족속의 마음의 교만 첫째로 오바다서 1장 3절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지적한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든다.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고, 무엇을 부탁했을 때 지나치게 뒤로 빼는 것도 결국 나를 내세우는 교만이다. 오직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24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영적 서명, 기동 서명, 문화 서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직분은 바로 '왕권'이다. 천국에 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왕권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영적 질병, 우울증, 중독과 같은 모든 흑암을 단호하게 박살내야 한다. 우리 후대 랍넛들은 세상을 살릴 영적 황태자이다. 다가오는 세계랍넛트대회(WRC)를 위해 우리 참사람 교회의 랍넛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영적 황태자로 서명을 살릴 영적 서명으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길 기도한다.

2) 세상을 향한 헛된 의지 두 번째로 에돔 족속은 세상의 조건을 헛되이 의지했다. 오바다서 1장 3절 하반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교만했다. 성지순례 당시 요르단에 있는 에돔의 거주지 '페트라'를 방문했을 때, 거대한 바위벽이 솟아 있어 적군이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임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별 사이에 갇힐일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욥1:4)고 경고하셨다. 결국 그 웅장했던 도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의 말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가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고전 1:18, 21),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골2:3)을 굳게 믿어야 한다.

3)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함(골1:11-14)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포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총 21절밖에 되지 않은 오바다서에서 절반 이상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다. 먼저 오바다 1장 11절을 보면 "네가 멀리 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배 뿔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에돔은 옆에서 적들과 함께 전쟁에 가담하고 약탈하며 배후였다. 에돔은 예서의 후손이다. 예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형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민족이 바로 형제인 에돔 족속이었다. 이처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 이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나 동업자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다. 사탄의 이러한 분열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란다. 오바다 1장 12절에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충만을 받아야만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환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려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구경거리로 삼고, 남은 재물을 약탈했으며, 도망치는 자들의 피난길을 방해하고 심지어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복음의 백성이자 형제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동조하고 방관하고, 기뻐하고 비난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약탈하며, 포신을 방해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이 끔찍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영원히 멸절시키셨다. 일본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DNA검사를 해보면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하며, 한국의 많은 성씨의 조상이 중국에서 넘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다두고 우리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준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이다. 그랜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1) 우애와 존경을 먼저 실천 첫째,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한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존경스러워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등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만 할 뿐 남을 존경할 줄 모른다. 형제나 자녀, 혹은 직장상사에게서도 반드시 좋은 점을 찾아내야 한다.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부작정하더라도 한 가지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어 존중할 때,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체질이며 마귀에게 속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작은 장점 하나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사건 안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앞서 그랬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낚고 되돌리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겸손, 눈물, 희생, 끝까지 참는 온전한 사랑을 찾아내고 배워야 한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관념적으로만 그려놓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2) 제자의 표지인 서로 사랑을 지키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가 다르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3) 형제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잠시 사랑하고 잠시 좋아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은 오래도록 함께해야 한다.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맞지 않아 다두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 바로 그곳에서 사랑을 빼놓고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자 흑암과 사탄의 역사가 깨어진다. 세상의 조건적인 에로스 사랑은 서로 맞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헤어진다 그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지속하는 아가페 사랑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4) 형제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 매우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라'라는 '바보, 멍청이, 머리가 빈 녀석'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형제나 성도들에게 이처럼 멸시하는 말을 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기를 바란다.

5) 교회 내의 법정 다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 간에 세상 법정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의견이 충돌하여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일이 많았다.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소통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지만, 끝까지 서로 양보하고 귀담아들으며 소통해야 한다. 목사, 장로, 청년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교회는 지옥이 된다. 그러다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를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관이나 검사, 변호사 같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가 판단을 받는 것을 두고 바울은 "너희 가운데 그 일을 조종하고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며 자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없다고 탄식했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어떤 수조 원대의 부자가 자신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고 한다. '100세가 되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는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었다고 한다. 100세가 되면 넓은 집은 청소하기만 힘들고, 입맛이 없어지면 돈이 많아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결론을 내었다. 그가 비록 복음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떠한 목표나 조건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6) 연약한 성도와 가족을 돌봄 그리고 선교현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헌금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헌신해 주시면 작은 교회와 선교현장에 전달할 것이다.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셨다. 부흥이라는 동기 때문에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베풀 때 하나님은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며 학업과 사업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베풀고 세계선교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다.

7)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씀한다. 베풀고 선교하며 땅끝까지 주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명된 강력한 증거이다. 내 힘으로는 절대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8) 형제, 가족, 친척을 돌보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한다.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형제와 친척을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 나의 어머니는 빚을 지는 체질이 있으셨다. 어느 날 어머니의 빚을 모두 확인해 보니, 이자가 가장 비싼 500만 원짜리 빚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돈부터 당장 갚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이유를 들어보니, 남편이 죽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는 사촌 형수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그 돈을 빌려와 그 이자로 사촌 형수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빚 갚는 것을 당장 그만두자고 했다. 훗날 그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다.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형제 사랑이었다. 이웃과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된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불리해지면 금세 다른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므로, 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9) 형제 사랑은 참된 믿음의 기준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강단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다시 다 투겨나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럴 때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수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에돔 족속처럼 교만하여 이웃을 품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매 순간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태도를 갖추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불가능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에돔 족속과 같은 이웃이나 가족, 형제가 있어 나를 돕기는 커녕 도리어 큰 어려움을 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온전한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 실현해 가는 성령충만한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캠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오바다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메시지가 주신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묵상하며 온전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